■전남지사 후보에 듣는다 한나라당 김대식

"여당 인맥 활용 전남 발전 실속 챙길 것"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경선을 치렀다. 예전과 달리 후보가 3명이나 됐는데, 그 이유는?

▲변화에 대한 욕구라 생각된다. 그동안 모든 정권이 호남의 발전을 약속했지만, 정부가 호남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회의가 많았다. 특히 '호남 정권'인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에도 호남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이 더뎠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후보가 이 대통령의 마음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선에 나선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이 제2의 고향이라고 들었다. 부산과 경남, 또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출마를 해도 되는데 굳이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온 이유는?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 전남도 이제 실속을 챙겨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을 이용해 전남의 실속을 꼼꼼히 챙겨와야 한다. 여수 세계박람회·F1 유치·나주혁신도시 등은 전남만의 사업이 아니다. 정부를 등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국책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전남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할 힘이 있는 인물이 전남지사가 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만이 전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고향 전남을 다시 찾은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로 전남 22개 시·군을 방문했을 때 지역민이 느끼는 한나라당 정서는 어떠했는지?

▲많은 분들이 격려해줘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힘 있는 후보'가 왔으니 당을 떠나서 전남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보자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분들께 얻은 힘을 저는 전남 발전의 희망으로 되돌려 드리고자 한다.

-전남도의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 도지사가 된다면 임기 4년 동안 중점 추진할 정책은?

▲현재 추진중인 여수 세계박람회, 호남고속철도, F1 그랑프리, 순천 정원박람회, J프로젝트, 나주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 무안공항 활성화 등이 전남의 현안 문제다. 이 모든 사업들이 전남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훌륭하게 마무리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다. 덧붙여 고령화와 농촌 교육문제 해결도 현안이라고 본다. 노인 전문의료시설을 유치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미래 발전의 주역이 될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 후보와의 정책공조를 줄곧 이야기 해왔다. 당선이 되지않더라도 전남을 위해 어떤 일을 모색할 것인지?

▲출마소견에도 밝혔지만, 전남 도지사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다. 내 고향, 나의 전남을 한 단계 향상시켜야한다는 소명과 같은 바람에서 전남지사에 출마했다. 전남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어 지역간 불균형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고 바람이다. 아울러 이제는 영·호남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뜻은 이 대통령의 큰 뜻이고 나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당 후보 역시 전남 발전에 한결같이 동의할 것이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나의 역량이 허락하는 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정파를 떠나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도민도 그런 자세를 원할 것이다. 또한, 전남에서 치러야할 많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이 절실하다. 전남도가 힘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후보가 제시하는 전남의 비전은 무엇인가. 10년 후의 전남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전남의 비전은 관광·경제·교육 활성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낙후된 전남을 단순하게 토건사업으로 발전시켜려면 안 된다. 전남의 비전은 전남만이 갖고 있는 환경과 자원이다. 무수히 많은 섬, 청정환경, 뿌리깊은 문화·예술, 맛깔스런 음식이 전남의 비전이다. 이러한 환경과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저성장·고실업이라는 경제구조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글로벌에 당당히 맞서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럴 경우 10년 후에는 전남을 떠나는 사람은 없게 되고, 인구 유입을 통해 잘 사는 전남이 될 것이다.

-여수엑스포, 순천 정원박람회 등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국제행사가 성공개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국제 행사는 외국기업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했는데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게 된다면 결코 성공한 대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국기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외국 기업 유치는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부와 이대통령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대식 신상 메모

출생	영광 염산
본관	김해
신체	키 175㎝, 몸무게 72㎏
학력	일본 오타니대학 문학박사
주요경력	전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제32대 회장 전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후보 비서실 네트워크팀장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가족	모친, 배우자, 1남1녀
재산	2억여원
납세	2759만2000원(최근 5년간)
종교	기독교
취미	독서, 사람만나기
좌우명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항상 내가먼저 웃고 다가간다)
애창곡	초가삼간
쉴때 가족들과 하는 일은	등산
아내에게 주로 하는 말은	고마와요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말은	지금 네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좋아하는 연예인	김건모, 송일국
좋아하는 음식	김치찌개
좋아하는 여행지	섬진강 일대(물을 좋아함)
별명	조직의 귀재, 네트워크의 달인 (이명박대통령이 붙여준 별명)
저서 혹은 논문	아이티의 눈물 등 20여권
주량/흡연	소주 반병
홈페이지	www.김대식.kr

김대식은 누구

일찍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학자의 길을 걸었다. 국비 유학생으로 뽑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뒤 30대에 교수로 임용, 20년이 넘도록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 부산 동서대 학생처장을 역임하며 전국 학생처장협의회 회장을 맡았고, 이때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호남 출신 인사 중 유일하게 장관급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회문화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여수박람회·F1 등 국책사업 정부 등지고 성공할 수 없어

노인의료복지·농촌교육 해결 정파 떠나 영·호남 화합 최선

오늘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김정일 후진타오 등과 6자회담 복귀 등 논의할 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둘째날인 4일 밤 다롄을 출발, 베이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푸리화호텔에서 30㎞ 떨어진 다롄경제기술개발구를 둘러본 뒤 호텔로 돌아왔으며,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께 일행과 함께 숙소인 다롄 푸리화호텔을 나섰다.

중국 당국은 김 위원장 일행이 나간 이후 푸리화 호텔내에 설치했던 보안검색대를 없앴으며 호텔 경비도 해제했다.

김 위원장 일행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시간대로 미뤄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베이징으로 향할 공산이 커 보인다.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이날 내내 다롄역에서 대기했으며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4시)께 특별열차에 짐을 싣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동 경로로는 특별열차를 이용해 다롄-선양-베이징 노선을 택할 경우 10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 일행이 5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 및 시진핑 국가부주석과의 회담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연대강화, 북핵 6자회담, 북한 후계구도,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靑 "천안함 원인 규명 연계 주적 개념 부활 검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관계자는 4일 '주적(主敵)' 개념의 부활 여부와 관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문제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과 연관지어 검토가 진행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보의식 이완을 지적하면서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불과 50Km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의 장사정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 주적 개념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라는 확실한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개념을 재도입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